

‘사랑의 실천자’ 를 기르는 대학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기획조정처

■ 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

한양대학교는 1939년 7월에 동아공과학원으로 그 첫발을 내딛었다. ‘과학기술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백남 김연준 선생의 기술보국(技術保國)의 신념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공과학교를 탄생시켰고 1948년, 동아공과학원이 최초의 4년제 공과대학인 한양 공과대학으로 승격됨으로써 백남 선생의 기술보국의 신념은 면면히 이어지게 되었다.

설립자 백남 선생의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적 신념과 의지는 산업화의 핵심 인재들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어 1960년대,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양이 담당했던 몫은 실로 큰 것이었다. 산업 현장의 많은 기술 인력들은 한양이 길러낸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한양이 길러낸 인재들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산업화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회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강조되었던 백남 선생의 이러한 기술보국의 신념은 이후 ‘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 ‘쓰임새 큰 인재’를 길러내

는 한양의 ‘실용학풍’으로 이어져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양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사랑의 실천자’ 를 기르는 대학

한양대학교의 학풍을 실용학풍이라고 한다면 한양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이 자리잡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통해 이 땅에 20만의 ‘사랑의 실천자’들을 길러냈다. 한양의 인재들이 사회에서 친화력있고 봉사할 줄 아는 정신을 지닌 인재들로 평가받는 까닭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정신 아래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정신은 한양의 교육 속에 짙게 배어 있다. 특히 1994년 최초로 학교 내에 사회봉사단을 창설하고 사회봉사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학생들은 사회 곳곳에 나가 봉사의 땀을 흘리며 사랑의 정



한양대 서울캠퍼스 전경 ▲

신을 실천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1년에 4개 학기로 나뉘어 실시되는 사회봉사 과목에는 연인원 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어 '사랑의 실천'이라는 한양의 건학이념은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사랑의 실천' 정신 아래 5대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지혜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 한양이 길러내는 인재들은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바탕으로 기본을 중시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퓨전리더(Fusion Leader)인 '교양인', 전공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자기 주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추구하는 셀프리더(Self-Leader)인 '전문인', 학문적 지식의 적용가치를 제고시키고 실천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Transformational Leader)인 '실용인', 열린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세계무대를 개척함으로써 한양가족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비전 추구형 리더(Visionary Leader)인 '세계인'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상생철학을 헌신적으로 실천

하는 섬김의 리더(Servant Leader)인 '봉사인'이다.

■ Global i-Leader의 양성

한양대학교가 그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가장 중요한 힘은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가려는 의지에 있다.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안목과 혁신의 의지로 한양의 교육과 연구는 늘 새로워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교육개혁추진평가'에서 한양대학교가 제도 시행 원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한양의 혁신의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의 의지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잘 나타나고 있다.

'HY Project 2010'이라고 이름붙여진 한양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6-i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imaginative education(창조적 인재교육), initiative research(앞서 가는 연구), international cooperation(국제교류 활성화), innovative system(행재정 제도개

혁), intelligent campus(인텔리전트 캠퍼스 구축), incorporative network(새로운 한양 공동체 구축)이라는 6가지 전략은 한양의 혁신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양은 이러한 발전전략을 통해 서울캠퍼스는 '글로벌 리더와 첨단지식 육성의 모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academic convergence'를 실천적 학문과 인재 육성'이라는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안산캠퍼스는 '동북아 knowledge cluster 중심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학연산 클러스터를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여 두 캠퍼스를 각각 특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한양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Global i - Leader의 양성'이라는 할 수 있다. 한양의 새로운 Grand Vision인 'Global i - Leader의 양성'은 실용학풍에 바탕을 두고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Global i-Leader란, 세계적인 안목(International Insight)을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Imaginative Idea)와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서울과 안산에 자리잡은 2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여기에 14개 대학원, 21개 단과대학, 1개의 독립학부, 47개의 연구기

관이 자리잡고 있고 학부생 25,000여 명, 대학원생 7,500여 명, 교수 1,100여 명, 직원 400여 명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한양을 건설해가고 있다.

그 동안 한양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늘 새로운 교육을 통해 20만 동문을 배출한 한양의 졸업생들은 공학 분야 뿐 아니라 인문, 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연구소 연구원 수 국내대학 1위, 교수 배출 수 5위, 법조분야에

서 현역 판검사 전국 4위, 역대사법시험 합격자 전국 3위, 재계분야에서 30대 그룹 임원 전국 2위, 삼성 전자 임원 전국 2위, 현대 자동차 신규임원 전국 3위, 국내 증권사 CEO 전국 3위, 국내 100대 기업최고 경영자 출신 전국 4위 등 몇 가지 자료들은 우리 한양의 교육적 성과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양대학교의 높은 위상은 연구 분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국책 R&D사업으로는 1994년 초대형구조시스템 연구센터를 시작으로 하여 1996년 전자재료 및 부품 연구센터, 1997년 세라믹공정 연구센터, 1999년 최적 설계신기술 연구센터, 2000년 첨단도로 연구센터 및 방사선안전 신기술 연구센터, 2001년 마이크로바이오센터, 2002년 양자광기능 물질 연구센터 및 신뢰성 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NRL, 하이브리드 연구센터, 자동차전자 연구센터, B-Memory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앞서가는 연구를 추진하

고 있다.

■ 혁신의지로 새로운 추구

한양의 발전의 원동력은 혁신의지로 늘 새로워지려는 데에 있다. 서울캠퍼스의 특성화 전략인 ‘Academic Convergence(학문적 융합)을 통한 실천적 학문과 인재 육성’이나 안산캠퍼스 특성화 전략인 ‘학연산 클러스터를 통한 인재 육성’ 시대를 선도하려는 혁신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 한양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를 ‘융합’으로 읽어내었고 서울캠퍼스는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안산캠퍼스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융합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교육 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서울캠퍼스가 ‘성장 동력산업을 위한 융합기술기반 핵심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과제로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사업에서 안산캠퍼스가 ‘학연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한양대학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양은 이러한 특성화 사업, 산학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서울캠퍼스는 더욱 큰 규모의 학문적 융합을 도모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과 연구를 실현할 것이며 안산캠퍼스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융합 모델을 통해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서울캠퍼스는 앞으로 창의적 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연구 네트워크 사업, 공학교육 혁신사업, 글로벌 테크노 경영교육 사업 및 교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특성화 사업 등을 병행해 특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안산캠퍼스에는 이미 학연산 클러스터사업단이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과 민간 기업들이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였거나 설립 중에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 등이 이미 교내에 설립되어 있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양대학교의 이러한 혁신의지가 학교 발전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이었다면 건학정신 ‘사랑의 실천’은 이러한 힘을 발현하게 해주는 정신적 원천이었다. 제 아무리 혁신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룩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물거품과 같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양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랑의 실천’ 정신을 혁신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제 한양대학교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성과에 만족하거나 머물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약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한양인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꿈은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학교육**